

**공기반자금 2,363억원 확정
항공우주부분 396억원 지원**

통상산업부는 '96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총 2천3백6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통산부는 지난 3월 29일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통해 이와같은 내용의 '96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공기반기술개발사업에는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에 233억원, 다목적실용위성 개발사업에 163억원등 항공우주부분개발에 총 396억원이 지원되며 이밖에 기계와 전자, 반도체 등 중기저점기술개발에 601억원, 차세대 자동차와 주문형 반도체, 초소형 정밀기계 등 선도기술개발에 430억원 등이 지원된다.

금년부터 시작되는 산업기술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 사업은 우리나라 2000년대 산업기술수준을 선진국의 65~75% 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신규지원대상을 공고, 2개월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오는 7.8월경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도 총 28개 사업에 372억원의 지원이 결정됐는데 오는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예정인 제1회 국제항공우주 테크노마트행사는 5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동사업의 자금도 7월중 지원될 예정이다.

**UH-60 절충교역 설명회 개최
5월15일 힐튼호텔서**

그동안 미국 측 사정으로 연기되었던 UH-60 헬리콥터 절충교역(Off-set)에 대한 사업설명회(Supplier Conference)가 오는 5월 15일(水)에 힐튼호텔에서 개최된다.

UH-60 헬기의 제작사인 시콜스키사를 비롯하여 얼라이드시그널社 등 미국 16개 업체가 참가하는 이번 설명회에 참여하는 한국측 기업은 총 22개업체 73명으로 파악되어 있다.

동 설명회에서는 UH-60 관련 직접 절충교역 뿐만 아니라 타 품목의 간접 절충교역도 다루어진다. 제시된 절충교역 대상 품목은 항공관련 다중회로기관, 정밀구조기계부품 등이며, 기술이전 품목으로는 복합재, Flexible Circuits, Liquid Crystall Display and Processing 기술 등이다.

미국측 참여회사

- Aeroquip Corporation
- Allied Signal Aerospace
- Astronautics Corporation of America

- Canadian Marconi
- Teledyne Inc.
- DOW/UT Composites Product Inc.
- Flightline Electronics
- General Mechanics
- Hamilton Standard
- Lear Romec
- McGill Manufacturing
- Moog Inc.
- Packard Hughes
- Simmonds Precision Aircraft Systems
- Senior Flexonics-SSP
- Sundstrand Aerospace

**다목적실용위성 추진위 개최
PDR 실시, 발사체 선정 임박**

과학기술처는 4월 16일 과학기술처 소회의실에서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탑재체 구입등 현안사항을 검토했다.

과학기술처,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항공우주연구소, 항공우주협회 등 추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동 추진위원회에서는 다목적실용위성 추가계약(전자광학탑재체 및 본체 추가계약)을 위한 계약조건 승인, 다목적실용위성 관제시스템 개발사업 추진, 다목



UH-60 헬리콥터 절충교역에 대한 설명회가 열린다.

적실용위성 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지침개정 등 총 3개의 안건이 부의되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다목적실용위성 추가계약(전자광학탑재체 및 본체 추가계약)을 위한 계약조건승인은 다목적실용위성의 실용성 제고를 위한 전자광학탑재체 및 본체 국산화 부품 중 추가 옵션부품개발을 위해 同 사업 주계약자인 美 TRW사와 추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안전으로 전자광학탑재체와 본체옵션을 포함하여 약 1천7백만달러의 추가계약을 체결기로 하였다. 아울러 同 계약에 따른 기술이전 여부도 함께 타진기로 하였다.

다목적실용위성 관제시스템 개발사업 추진은 同 사업이 국내 기술로 이루어진다는 점(한국전자통신연구소 주관으로 '96년부터 4년간 개발)을 감안하여 신뢰성확보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다목적실용위성 PDR (Preliminary Design Review)이 美 TRW사에서 4월 30일부터 5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발사체 선정도 곧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책 고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정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의 지정 및 지원사업계획

(고시제1996-4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 특례지원 추천요령(고시제1996-5호)'을 각각 고시하였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의 지정 및 지원사업계획은 지방중소기업이 당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생산현장의 기술적인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자율적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신청자격은 서울에 소재하지 않은 대학과 중소기업이 공동 기술개발을 위해 구성된 지역 컨소시엄으로 10개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해야 한다. 정부의 총 지원금액은 당해 사업년도 총 기본계획사업비의 50%범위 이내이며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지역컨소시엄에서 연구개발된 성과는 해당기업이 5년간은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 특례지원 추천요령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하고 보증심사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 同 추천요령에 따르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에 의한 개발품목이나 최근 2년 이내에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중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통산부 고시 제1994-36호)'에 속하는 기술이나 사업화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은 신청기술의 우수성 및 경제성의 검토를 거쳐 선정된다. 질차는 중소기업이 '기술신용보증 특례지원 신청서'를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청(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적격업체로 판정받은 업체는 신청서에 기재한 자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 헬기장 17곳 건설

올해중 대전 유등천, 경남 통영 등 17곳에 헬기장이 건설될 전망이다.

지난 4월 8일 건설교통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긴급한 항공수송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헬기를 이용한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올해안으로 17개지역 거점에 헬기장을 건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1단계로 충남 예산, 강원 용평, 서울 중지도, 경남 통영, 대전 유등천 등 5곳에 헬기장을 우선 건설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2단계로 헬기장이 들어설 지역은 전북 정읍, 서울 여의도, 경남 양산, 광주 북구, 울산 남구, 경남 창원, 부산 사하, 인천 연수, 청주 흥덕, 진주 남강, 전남 여천, 대구 북구 등 12곳이다.